원양산업 동향[2017.3]

□ 어종별 생산동향

○ **(실적)** 원양어업 전체 생산량은 전년 대비 13.1% 증가

- **(참치류)** 인도양 수역의 어장환경 악화로 전년 동기간 대비 생산량 6.7% 감소

- **(오징어)** 포클랜드 어장환경 회복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생산량 134.2% 증가하였으나 평년 대비 18.0% 감소

(단위 : 톤)

구 분		평년(5년)	2016년		2017년		전년대비 증감(누계)
		누계 (1.1~3.31)	당월	누계 (1.1~3.31)	당월	누계 (1.1~3.31)	
합 계		124,716	37,107	89,385	44,887	101,071	13.1%
참치류	선망	60,021	23,721	59,459	19,961	55,386	△6.9%
	연승	7,337	2,334	7,124	2,159	6,762	△5.1%
	소계	67,358	26,055	66,583	22,120	62,148	△6.7%
오징어류		36,134	8,154	12,655	16,234	29,643	134.2%
명태		-	-	-	-	-	-
꽁치		-	-	-	-	-	-
기타		21,224	2,898	10,147	6,533	9,280	△8.5%

○ **(전망)** '17년 4월 참치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, 오징어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예상

□ 주요 수역별 생산동향

○ **(중서부태평양)** 연승어업은 조업척수 4척 감소 및 어장환경 악화에 따른 전년 동기간 대비 생산량 15.4% 감소, 선망어업은 생산량 작년수준 유지

○ **(인도양)** 어장환경 악화로 전년 동기간 대비 선망어업 생산량 52.4%, 조업척수 2척 감소, 연승어업 생산량 36.1%, 조업척수 3척 감소

○ **(포클랜드)** '16년 대비 대서양 서남부 오징어 어획량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간 대비 생산량 191.4% 증가, 조업척수 2척 감소

(단위 : 톤, 척)

주요수역		평년(5년)	2016년				2017년				전년대비 증감(누계)	
		당월	당월		누계(1.1~3.31)		당월		누계(1.1~3.31)			
		생산량	생산량	척수	생산량	척수	생산량	척수	생산량	척수	생산량	척수
합 계		124,716	37,107	186	89,385	196	44,887	177	101,071	190	13.1%	△6
중서부 태평양	선망	54,902	20,769	22	51,653	24	18,271	24	51,673	25	0.0%	1
	연승	3,884	1,209	46	3,881	57	1,158	42	3,284	53	△15.4%	△4
인도양	선망	5,120	2,952	5	7,806	5	1,690	2	3,713	3	△52.4%	△2
	연승	765	353	12	1,111	12	126	6	710	9	△36.1%	△3
포클랜드 (채낚기 및 트롤)		33,461	5,933	37	10,570	38	16,708	36	30,799	36	191.4%	△2
북태평양	북양트롤	74	74	1	74	1	65	1	65	1	△12.2%	-
	봉수망	-	-	-	-	-	-	-	-	-	-	-
기타수역		26,511	5,817	63	14,290	59	6,869	66	10,827	63	△24.2%	4

□ 어가동향

○ **(참치류)** '17년 3월 가다랑어 수요감소로 인해 전월 대비 어가 하락하였지만 계속되는 국제 생산량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32.8% 상승, 황다랑어 생산량 감소로 4.8% 증가

○ **(오징어)** '16년 계속된 생산부진 및 재고량 감소로 전년 동기간 대비 102.4% 상승

{단위 : 생산단가, 원/kg}

구 분		평년(5년)	2016년	2017년	전년대비 증감
		누계(1.1~3.31)	누계(1.1~3.31)	누계(1.1~3.31)	
참치류	가다랑어	1,562	1,377	1,829	32.8%
	눈다랑어	6,529	9,116	5,943	△34.8%
	황다랑어	3,266	4,281	4,488	4.8%
오징어류		2,036	1,967	3,980	102.4%
명태		-	-	-	-
꽁치		-	-	-	-

○ **(전망)** '17년 4월 가다랑어, 눈다랑어, 황다랑어 어가 전월 대비 상승, 오징어 어가 하락 예상

원양산업동향월보 집계 결과는 잠정치이며 향후 통계확정 시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음